

영적 상징과 꿈 <30>

부제: 헌화가(獻花歌)에 담긴 영적 의미



(김홍도, 기우선인 騎牛仙人)

어내어보려 합니다.

자, 천여 년 전 설화(說話)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이 이야기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꿈이나 설화의 첫 장면은 그것이 어떠한 영의 층에 있으며 어떠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무대장치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신의 영역을 의미하며 나아가 개체성을 넘어 모든 것을 그 안에 하나로 품어내는 하나님의 신 자체입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것을 잉태하고 낳는 모성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이 닿는 곳입니다. 물은 아래로 아래로 흘러 가장 낮은 곳에 임합니다. 내가 나로서, 나인 체로 이루어지고 구원받고 끝없이 상승하려는 것이 마귀 신의 속성이라면 나를 버리고 죽이고 하강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해서 노자는 '상선약수(上善若水)', 하나님의 신은 물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물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는 온 우주의 신성(神性)의 총합이요 모성이며 낮은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앞에 우뚝 솟은 천길 바위 절벽이 등장합니다. 이 바위 절벽은 황폐하고 척박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솟구쳐 오르려는 자존의 높이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헌화가는 이처럼 도입부에서부터 바다

와 깎아지른 천 길 낭떠러지를 한 장면에 배치함으로써 앞으로 이 이야기가 영의 세계를 배경으로 진행될 것이며 천 길 낭떠러지에서의 상승과 하강, 추락과 부활의 서사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수로(水路), '물의 길'

자, 우리의 여주인공 수로(水路)부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세계(異世界)의 신들도 탐할 정도의 미모의 소유자입니다. 꿈이나 신화 상의 아름다움(美)은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적 아름다움입니다. 수로부인은 영적 미인(美人)이며 영적 미인은 신(神)적 미인이나 하나님의 신입니다.

게다가 이름이 수로(水路), '물의 길'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낮은 곳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신의 상징이며 이 설화의 배경 또한 바다입니다. 따라서 수로(水路)는 그 바다로 향하는 길, 하나님의 세계로 향하는 길입니다.

수로(水路) 부인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 '나는 바다로 향하는 길, 신의 세계로 향하는 길 자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엄마 하나님, 이간자의 상징입니다.

수로부인이 사람들에게 절벽 꼭대기에 핀 꽃을 가져다달라고 합니다.

바람이 우뚝 솟은 인간의 자존과 척박한 마음자리를 상징한다면 그 끝자락에 피어있는 붉은 꽃은 자존과 아만으로 황폐한 마음의 층 저 깊은 곳에 갇혀있는 한 조각 붉은 마음(一片丹心),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부인의 요구에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그 절벽은 절대 사람이 이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힘으로 절벽을 오르려다 실패한 자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성(自性)을 붙잡아 보려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타이밍도 적절하게 우리의 두 번째 주인공이 소를 몰고 등장합니다.

노인, 고삐를 쥐다..

노인의 등장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우도(十牛圖)에서 소는 자성(自性)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도덕경(道德經)에서도 '곡신불사 곡신불사 是謂玄牝 시위현빈' '곡신은 죽지 아니하니 이를 현빈(玄牝)이라 이른다.' 하여 검은 암소가 등장합니다.

불가(佛家)의 관점에서 보나 도가(道家)의 입장에서 보나 소는 신성(神性)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상징의 틀 안에서 볼 때 이 장면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젊고 아름다운 부인과 늙은 노인의 대비 자체가 뭔가 어색합니다.

수로부인이 모성(母性)과 생명력의 상징이라면 노인은 자존과 아집과 노화의 상징입니다. 이 어색한 부조화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인은 고삐를 쥐고 소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엄밀히 보자면 인간이 자성(自性)에게 코뚜레를 채워서 끌고 다니는 주객전도의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Wag the Dog'입니다.

이 노인은 인간 나, 마귀 종 나인 체로 내 자성, 하나님을 붙잡고 쟁취하려는 자입니다. 실은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소의 고삐를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가 내 코에 코뚜레를 꿰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기도하고, 내 자성(自性)이 나 대신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허(鏡虛) 선사의 '뫼구멍 없는 소'의 이치입니다.

수로부인을 만나기 전의 이 노인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는 공부와 기도를 했던 자입니다. 그는 자신 안의 소, 자성(自性)을 보았을런지는 몰라도 '내가 여전히 주인자리, 주체영 자리에 앉아 자성을 보고(見性), 자성을 부리려 하면서도 '나는 오로지 자성(自性)의 뜻을 따르려 할 뿐이다.'라는 마귀적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의 소는 코뚜레가 꿰어져 있는 소,

'뫼구멍이 있는' 소입니다.

'나는 마귀'의 층에 머물러 있는 그는 결국 생명력을 잃고 늙고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고삐를 놓다..

해서 그는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수로부인의 생명력과 모성(母性) 앞에 선 노인은 자신의 한계와 영육간의 쇠락을 온 몸으로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는 수로(水路)부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모두가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다. 목숨을 내 놓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라며 뒷걸음질 때 그는 소의 고삐를 놓고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소의 고삐를 놓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중심을 관통하며,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는 숨 막히는 한 순간입니다.

그는 마침내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려는 마음의 고삐를 놓았습니다.

뫼구멍 없는 소

그는 내 앞에 등장한 여인에게 복종하고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내'말한다는 '나'를 말한다는 말입니다.

절벽은 더 이상 자존과 야심(我相)의 바벨탑이 아닙니다. 이제 절벽 길은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한 자성(自性)의 붉은

꽃을 따라 가는 순종의 길이요, 백척간두 진일보, 내 마음과 생명을 모두 내맡기는 방하작(放下著)의 현장입니다.

천길 낭떠러지는 순종과 귀의, 나의 죽음과 말길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헌화가(獻花歌)는 고삐를 쥐었던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내 마음의 꽃, 자성(自性)의 꽃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바치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꽃을 바침으로써 노인은 이제 영적 엄마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늙고 추한 노인이 아니라 여미의 젖을 빨고 있는 엄마 품의 갓난아이입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舎德之厚者(함덕지후자) 比於赤子(비어적자)' '품은 덕이 두터운 者(자), 갓난아이와 같다.'한 것 난이거입니다.

천 길 낭떠러지는 한 길 마음속입니다. 붉은 꽃은 저기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꽃을 바치는 자, 그가 곧 꽃을 받든 자입니다.

꽃을 바치는 자, 그 꽃을 받은 자보다 아름답습니다.

코뚜레에 코를 꿰인 소는 이제 사라지고 뫼구멍 없는 소가 '엄매~' 하고 읊는다. '엄마~'하고 읊는다.*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Have Confidence in Your Immortality! 당신의 영생을 확신하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피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영생을 확신하면 당신의 피는 영생의 피로 변해서 영생의 몸으로 화합니다.

▶ Blood changes as you think. Therefore, if you are convinced of eternal life, your blood will change into the blood of eternal life and into the body of immortality.

반면에 당신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언젠간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망의 피가 강하게 작용하여 당신의 피는 계속해서 썩고 결국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 따라 죽을 것입니다.

▶ On the other hand, if you think that "People are bound to die. I will die someday", the blood of death will become stronger and the blood will continue to rot, and eventually you will die according to your own thoughts.

세상에서도 의사들이 포기한 암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나는 반드시 낫는다" 라는 확신으로 병을 극복한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 There are countless cases in the world where patients with cancer or incurable diseases, which even doctors could not solve, overcame their diseases with the conviction that "I will definitely get better."

이와같이, 당신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원대한 꿈인 영생의 희망을 품으면 당신은 반드시 영생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 In this way, if you continue to hope for immortality, the greatest hope in the world, you will surely live forever.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사람들은 행복한 영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죽는 것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 Because people are children of God, they have the experience of happy eternal life, so they hate to die and long for eternity.

사람속의 하나님의 피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기억합니다.

▶ God's blood in human remembers the joy and happiness of forever life that cannot be expressed in human words.*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감로 없이 영생은 불가능하다

승리제단의 트레이드 마크는 감로이다. 종교학대사전에 따르면 감로란 고대 인도, 중국에서 전승되는 영약. 인도에서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아미타(amṛta)로 <죽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인도 최고의 고전 『리그 베다』에서는 뜻이 바뀌어서 불사가 되는 것, 신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신들의 음식물이나 음료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래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대 인도의 전승에서는 기름 소마 주(소마라는 식물에서 만든 음료, 술로 신에게 바친다)와 동일시되며, 꿀과 같이 달고, 만병의 약이라고 한다. 한문 불전에서는 감로라고 번역되어서 도리전에서 내리는 비, 단액으로 사람의 고통을 치료하고, 장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불사>라는 의미에서 영원의 생명을 가진 불의 가르침, 또는 불의 가르침에 의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밀교 경전에서 아미타불의 아미타는 amṛta의 속어형이라고 해석하고, 아미타불과 감로를 동일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노자』에 <천지가 만나서 감로를 내린다>고 되어 있듯이 천지음양의 이기(理氣)가 조화해서 내리는 감미로운 이슬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후세에는 태평세에 출현하는 상서(祥瑞)의 하나로 보았는데 『백호통(白虎通)』에 왕자의 덕이 하늘에까지 닿으면 감로가 내린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한의 무제는 동제의 승로반의 앞에 선인장을 놓고 거기에 고이는 감로를 육에 섞어서 복용하여 선인이 되고자 하였다고 전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로 [甘露] (종교학대사전, 1988. 8. 20)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설명되었

던 감로에 대해서 조희성님께서는 예베시 사전에 활용되는 빛이 바로 감로라고 명확하게 꼭 짚어서 말하면서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百合花(백합화)같이 피겠고~"에 기록된 이슬이 바로 감로라고 설명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간자인 조희성님에게 이슬으로써 함께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중국어 성경에도 똑같이 이슬을 감로(甘露)라고 번역해 놓았다. 감로에 대한 언급은 열반경, 법화경을 비롯한 여러 불경과 격암유록, 중화경, 도덕경 등에도 있는데 연구가 아직 될 것이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른 경전에도 언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열반경 거의 전면에는 미륵불(보살마하살)이 감로(甘露)를 들고 출현하는데 그 감로는 불사지약(不死之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격암유록에는 감로

해인(甘露海印) 또는 불로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강증산 선생이 지은 중화경 88장에는 “佛日出時 불일출시에 降法雨露甘露이강로하리니 世間眼目세간안목이 今茲始開금자시게라. 有緣者유연자-皆悉聞知개세문지하리다 好道遷佛호도전불하여 佛成人事불성인사하리다.” 도덕경 32장에는 “天地相습천지상합 以降甘露이강로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전 구절은 장교자가 감로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 발견된 구절이지 장교자가 언급하기 전에는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조희성님께서는 이러한 감로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유사 이래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감로는 영생의 양식이 라고 하면서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된 존재들은 감로를 먹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감로가 오직 승리제단에만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다.*